

1 종계·부화업 관리요령과 수입종계 사후관리 폐지

양계산업이 규모가 커지면서 위생분야와 유통·소비분야에서 문제가 크게 대두...

1

농림수산부는 87. 4. 8 일부로 고시 제87-15호로 종계 부화업관리요령을 제정 고시하고 지난 23일에는 전국 종계부화업자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이 요령을 제정 공포한 목적

전문 17조로 된 요령의 대부분이 생산조절 수급조절의 명령과 등록 또는 허가규모를 조절하는데 관이 깊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트는데 역점을 두어 앞으로 종계장과 부화장 관리에 행정력이 깊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업의 발전은 민간 주도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효율과 능률이 발휘되어 높은 성장을 하게 된다. 특히 예술분야는 자율과 창의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분야이다.

그간 민간주도로 발전되어 온 양계산업이 규모가 커지면서 위생분야와 유통·소비분야에서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민간주 자율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정부가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 요령이 나온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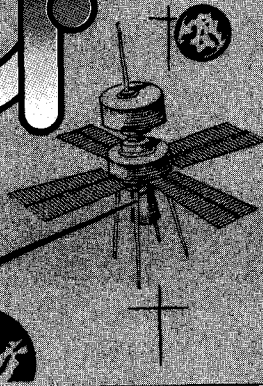
구체적인 법조항이나 해설은 본문을 참조하면 된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지금까지도 초생추 생산단계부터 농림수산부장관이 수급조절을 명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으나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이 요령의 시행과정이 제정목적대로 성실하게 어떻게 운용하는가의 문제이다.

시행될 수 없는 법은 법으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하기 때문에 관리요령의 시행에 광범위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안리나

盧永翰
(본지 편집국장)



은 닭의 개량을 촉진하고 양계업의 안정적 경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조에서 밝히고 있다.

이중 개량촉진은 앞머리에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종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기왕에 종계가 갖고 있는 유전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양관리를 하는 것이 종계장의 관심일 수 있다.

이중 질병문제는 따로 농림수산부장관이 별도 정하는 요령에 의하도록 하였고 구체적인 시설기준이나 사양관리는 관례에 따라 업자 스스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뒤에 나오긴 하였으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요령이 되었다.



운전석이
동이면
갈 쪼러
갈까 몰라

8

배가 고파 범죄하는 것은 법 이전에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경제문제이며 범죄를 범죄로 알지 못하고 행할 때는 교육이 담당할 문제이고 이도저도 아닌 카인적 범죄는 종교에 맡길 문제이다.

실제 법이 담당할 영역이란 그리 넓은 것도 아니며 법이 담당할 분야가 아닌 것까지 법이 관여할 때는 양계산업을 위해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을 위해 양계산업이 존재하게 될 수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번 관세청에서 수입증계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고 1년반 동안 사후관리를 하여오던 것을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폐지한 것은 형식만 남았고 종계업자에게 불편만 주어진 불필요한 조치가 없어진 것으로 앞으로도 법이 없어도 잘되는 풍토 조성으로 자율과 창의성이 발휘되어 양계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성경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빵이란 먹거리를 말하며 확대해석하면 물질 모두를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먹거리로만이라는 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먹거리문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다.

로마가 망한 것도 미식을 즐기는 먹거리문제라고 하는데 너

무 사치해도 안되고 반대로 부족해도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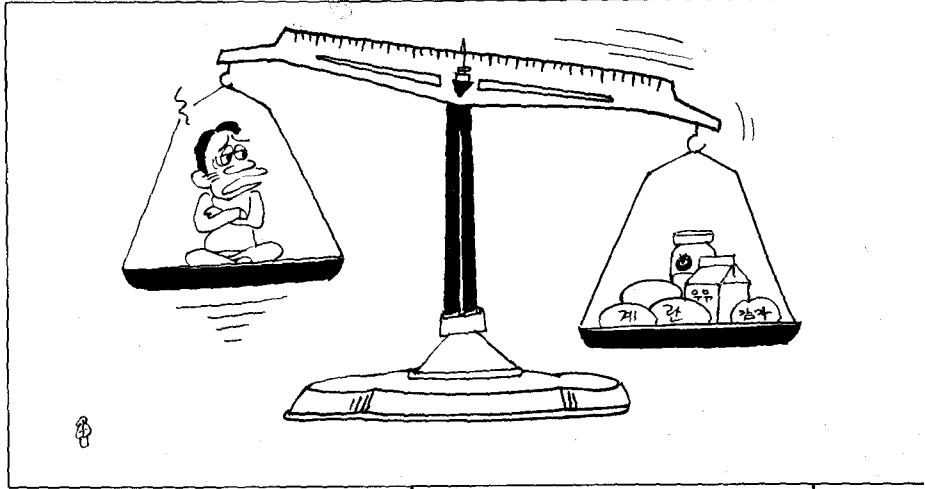
최근 국민 식생활 구조를 조사한 것을 보면 대도시일수록 학력과 소득이 높아질수록 맛 위주로 까다로워지고 있음이나 나타나고 있어 정부도 국민식량

2 계란을 더 먹어야

대도시일수록

학력과 소득이 높아질수록

맛위주로 까다로워지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어...



영양관리법 같은 것을 제정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

우리국민은 과연 올바른 식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부정적이다. 식생활개선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식생활 개선지침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식생활개선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해야 하고 이를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식생활이 잘못되어 있음을 말한다.

이번 한국먹거리연구회(회장 김민환)에서는 그간 발표된 자료를 모아서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하는 먹거리들의 수요량과 실제공급량을 비교한 표를 만들어 발표하였다.

이 표를 보면 일반 육류는 13%, 생선은 68%나 초과 섭

취하는데 비해서 계란은 필요량의 34.2%밖에 먹지 못하고 있어 왜 국민이 계란을 먹지 못하는지의 원인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계란외에 우유와 감자도 우리가 더 먹어야 할 먹거리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량의 자급율이라는 말도 이 표를 보면 곡류의 자급율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 잘못된 말을 생각하게 하고 나아가서 식생활의 불균형을 가져와 국민보건향상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계란과 우유와 감자류를 더 먹어야 하는 운동은 범국민운동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임이 확실하게 되었다.